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634.3	16.3	122,000	-3.6	-0.8	-4.7	-5.1	85.0	40.8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179.1	22.1	318,000	-3.9	-7.0	-8.4	-8.1	4.3	3.6	0.6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438.7	5.9	21,550	-3.1	-15.7	-31.2	-2.9	2.0	1.8	0.2	0.2	9.3	9.7
현대건설기계	906.2	10.9	46,000	-3.6	-11.9	-20.8	7.7	2.9	2.2	0.3	0.3	11.7	13.9
삼성중공업	5,247.9	19.9	8,330	-2.5	-4.0	-3.0	12.4	52.5	26.1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076.8	11.6	28,700	-3.4	-0.9	-17.1	-16.0	10.0	15.9	0.8	0.8	9.0	4.6
현대미포조선	2,212.8	13.4	55,400	-3.7	-7.7	-8.1	-7.7	12.0	8.6	0.4	0.4	3.6	4.8
한진중공업	174.5	3.3	1,645	0.0	N/A	N/A	-0.6	33.1	8.3	0.2	0.2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243.3	20.4	82,600	-3.2	-14.0	-32.8	-22.8	14.6	14.2	2.0	1.8	14.6	13.3
두산밥캣	3,263.1	25.3	32,550	-1.7	3.8	-4.0	3.3	11.9	11.2	0.9	0.9	7.4	7.6
현대로템	1,725.5	4.1	20,300	-2.9	-15.2	-31.0	-27.1	26.2	17.8	1.2	1.1	4.5	6.3
하이룩코리아	260.7	47.7	19,150	-3.8	-0.8	-1.5	16.4	8.7	7.9	0.7	0.7	8.8	9.0
성광밴드	323.2	16.5	11,300	-3.4	0.4	-2.2	-0.9	998.9	40.5	0.7	0.7	0.1	1.8
태광	304.8	11.7	11,500	-4.2	0.4	-5.7	-1.7	68.7	33.5	0.7	0.7	1.0	2.1
두산중공업	925.1	10.4	6,740	-3.9	-8.5	-32.7	-19.7	-20.2	12.0	0.3	0.4	-0.1	3.1
두산인프라코어	1,475.9	16.7	7,090	-1.4	-7.0	-20.0	-6.6	4.9	5.3	0.8	0.7	17.7	13.4
HSD엔진	132.1	3.3	4,010	-1.6	-16.5	-24.9	-24.1	-10.5	N/A	0.6	N/A	-4.7	N/A
한국항공우주산업	3,143.6	15.7	32,250	-1.8	-12.2	-5.4	1.1	47.0	20.6	2.9	2.6	6.1	13.8
한화테크윈	1,582.0	14.5	30,400	-1.5	-9.8	-3.5	-6.5	125.9	24.3	0.7	0.6	0.6	2.8
LG넥스원	819.5	7.7	37,250	2.6	-3.1	6.7	0.8	85.8	37.7	1.7	1.3	2.4	3.6
태웅	200.1	3.9	10,000	-2.0	0.1	-9.9	-4.8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69.3	7.0	9,980	-1.2	15.6	22.5	29.3	-21.1	18.0	3.7	3.0	-16.2	18.5
한국가본	383.8	15.1	8,730	-0.5	4.8	13.8	24.0	136.0	23.0	1.3	1.2	0.9	5.4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Minerva Marine goes to Daehan Shipbuilding for \$200m aframax tanker deal

대한조선은 그리스 선사 Minerva Marine에서 11.5만DWT aframax급 탱커 2+2척을 수주했다고 알려짐. 인도는 2021년 예정됨. 전체 발주규모는 약 2억달러로 예상되며, 척당 4,900~5,000만달러로 예상됨. Clarkson의 aframax급 탱커 신조선가는 2017년 말 4,400만달러에서 2019년 초 4,400만달러, 이번 주 4,850만달러 수준으로 상승함. (TradeWinds)

조선·철강 치열한 후판값 협상 레이스 "끝이 보인다"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체들과 포스코 등 철강사 간 2019년 상반기 후판가격 협상의 극적타결 가능성이 제기됨. 현대중공업은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 후판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고, 철강사들의 1분기 실적에 철광석 가격 급등으로 악화되었던 점이 배경임.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말부터 진행해온 후판가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EBN)

Shipowner calls for higher penalty for flouting IMO 2020

BW LPG 관계자는 싱가포르에서 IMO 2020 위반에 대한 벌금이 1만달러 수준으로 너무 낮다고 언급함. 태평양 항로에서 얻는 이익은 수백만달러인 반면, 벌금이 낮은 상황임. 대부분 규제를 지킬 전망이나, 명확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싱가포르 해운협회 관계자는 규정위반에 대해 1만달러 벌금 또는 2년간 투옥으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TradeWinds)

QP in fresh tender on North Field Expansion

Qatar Petroleum(QP)은 North Field Expansion(NFE) 프로젝트에 필요한 저장 및 적재 설비에 대한 입찰을 시작했다고 알려짐. 글로벌 주요 EPC 업체가 초청되었다고 알려짐. EPC 계약은 2020년 2월로 예상됨. QP는 최근 Gulf Drilling 및 Northern Offshore Drilling과 NFE에 필요한 Jack-up Rig 8기에 대한 용선계약을 체결함. (Upstream)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 바꾼 현대중공업.. 본사 서울 이전

현대중공업의 투자와 엔지니어링을 담당할 '한국조선해양'의 본사가 서울 계약동 사옥에 입주할 전망이다. 서울에 본사를 두는 이유는 R&D 인력 유치와 조선 계열사들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임. 현대중공업 인력 1.5만명 중 한국조선해양 소속 인력은 500여명 수준으로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알려짐. (파이낸셜뉴스)

PC시황 이번엔 정말 전국이다

PC선사 Concordia에 따르면 4Q18 개선된 시황이 향후 2년간 이어질 전망이다. IMO 2020 규제 2019~2020년까지 호황이 예상됨. 또한 석유제품 물동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주잔고는 낮은 상황임. PC선 수주잔고는 글로벌 선복량 대비 10% 이하로 알려짐. 향후 PC 수요 증가는 4~6% 수준인 반면, 선복량 증가율은 3% 이하로 예상됨. (선박뉴스)